지상백고좌

한산사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

“‘견성성불 요익중생’은 활발발한 동사다”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벽송사와 기기암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지금은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등이 있다.

백두대간이 숨가쁘게 달려오다 잠시 걸음을 멈춘 곳이 운수산이다. 골이 깊고 높아 운수산의 봄은 더디게 온다. 온몸으로 봄을 꽃피우는 산에도 겨울의 생채기는 남아있다. 여기 저기 가로로 길게 누운 설해목이 보인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설해목을 보면서 눈처럼 작고 가벼운 허물도 켜켜이 쌓이면 해를 입힌다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말해준다.

한산사를 품고 있는 운수산은 오랜 세월 운수납자가 깃들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용성선원이 세워지기를, 월암 스님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문경 한산사의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을 찾아뵈었다. 먼저 한산사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한산(寒山)’이라는 의미가 ‘참선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일체 망령을 다 끊어버린 경지’라고 한다. 스님은 “그것은 도인의 경지인데, 의지와 뜻만 클 뿐”이라며 웃었다.

이어 ‘용성’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용성 스님을 수행의 사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용성 스님은 절집 족보로 따지면 저에게 상노스님이지요. 제가 용성 스님의 증손 상좌입니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분입니다. 신불교 운동을 하신 분으로 그 당시에 풍금을 갖다 놓고 법회를 볼 정도로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또 많은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지금 조계종의 스님들 중 3분의 1이 용성 스님 문도들입니다. 용성 스님의 정신이 대각사상이기에, 용성 문도들이 모여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도 만들었습니다. 용성 문도 가운데 우리 은사스님과 우리 사형사제들이 가장 용성 스님을 선양하는 편입니다.”

월암 스님은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를 물었다.

“은사스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우리 상좌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도를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도 언제부터인가 내 상좌들에게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월암 스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발심하여 자발적으로 출가했다. 처음으로 불교학생회 선배들을 따라 법회에 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제 도를 생각하리라. 나는 무엇을 말할까 도를 말하리라. 나는 무엇을 행할까? 도를 행하리라. 도를 생각하는 마음 잠깐인들 잊으리까.”

법상에 오른 스님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평생 처음 들은 이 법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도를 생각하고, 도를 말하고 도를 행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겠구나.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바로 그 자리에서 ‘스님 저 출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전생의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절에서의 현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 절에서 공부하고 절에서 공

불교, 지혜 · 자비 바퀴로 가는 수레
“중생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견성성불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허물어지면
선방에서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견성, 삶 속에서 동사로 구현돼야 한다

납금도 대준다고 하니 그냥 마음 놓고 있었지요.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깊숙이 들어가 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월암 스님은 중국에서 3년 동안 옛 조사스님들이 깨달음을 펼친 선종 사찰을 순례했다. 옛 선사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은 불자라면 궁금해할 것 같아 중국 순례기를 듣고 싶다고 청했다.

월암 스님은 중국의 조사들을 공부할 때면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늘 동경했다. 중국에 가서 옛날 조사스님들의 행화한 도량을 참배하고, 그곳에서 안거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약 3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조사들의 행화지를 찾아 중원 천하를 주유했다. 문화혁명으로 불교가 형편없이 타격을 입었고, 그때 많은 스님이 속퇴했다. 반대로 더 깊은 산으로 숨어들어간 스님들이 있었기에 산속에 가면 노장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제가 건너갔을 때는 중국 전체 선원이 6개 정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방장스님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허운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제자들이 다 방장을 하고 있었고, 이들에 의해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같이 안거도 하고 가르침도 받았지요. 조사스님들의 행화지 백여 군데를 조정하면서 어떤 때는 노장스님의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 고생도 많이 했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내어서 타고 다니기도 했지요.”

우리가 〈전등록〉에서 읽은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지, 중국 사찰의 분위기가 궁금해졌다. 이에 월암 스님은 “중국 선원은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했다.

“우리는 선농일치(禪農一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농선(農禪)이라 해요. 농선 화풍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노동도 많이 해요. 한국스님이니 보는 눈이 있어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젊은 나이에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30~40년 전에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요.”

월암 스님은 북경대 철학과에서 선종사를 전공했고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여 개의 사찰 조정을 마치고 중국의 불교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학문과 실천이라는 두 능력을 다 갖추는 것이 좋겠다면서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권했다. 월암 스님도 조사스님들의 행적을 쫓는 공부는 어느 정도 마쳤으니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였는데 끝을 맺는데 7~8년이 걸렸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벽송사에서 가르침을 폈다. 지리산 벽송사에서 백송선회를 열어 많은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에게 실천과 선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벽송선회의 전통인 선교겸수(禪教兼修)는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월암 스님은 선종사와 간화선을 점검하고 실참을 통해 수행자의 바른 행을 점검하는 선회를 4년간 진행했다. 월암 스님은 유일하게 벽송사에서 주지소임을 맡았는데 주지소임은 빵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월암 스님은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전등수필〉 등 책도 여러 권 출간한 바 있다. 선교겸수의 중요성을 여러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

13면에 계속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한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전해진
이 짧은 글 속에는 당대의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남긴,
시간을 초월하여 곱씹을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법정 스님의 뒤를 잇는
불교계 대표 문장가 원철 스님이
한시 가운데서도 명구만 가려뽑았다.
한국·중국·일본이라는 지리적 차이와
승속을 막론하고 옛 문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한시를 찾아
핵심 구절만 옮기고
새롭게 이야기와 의미를 더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스무 살의 마음 연습
숨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의 여행
에릭 B. 룩스 지음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운희 옮김
320쪽 | 20,000원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